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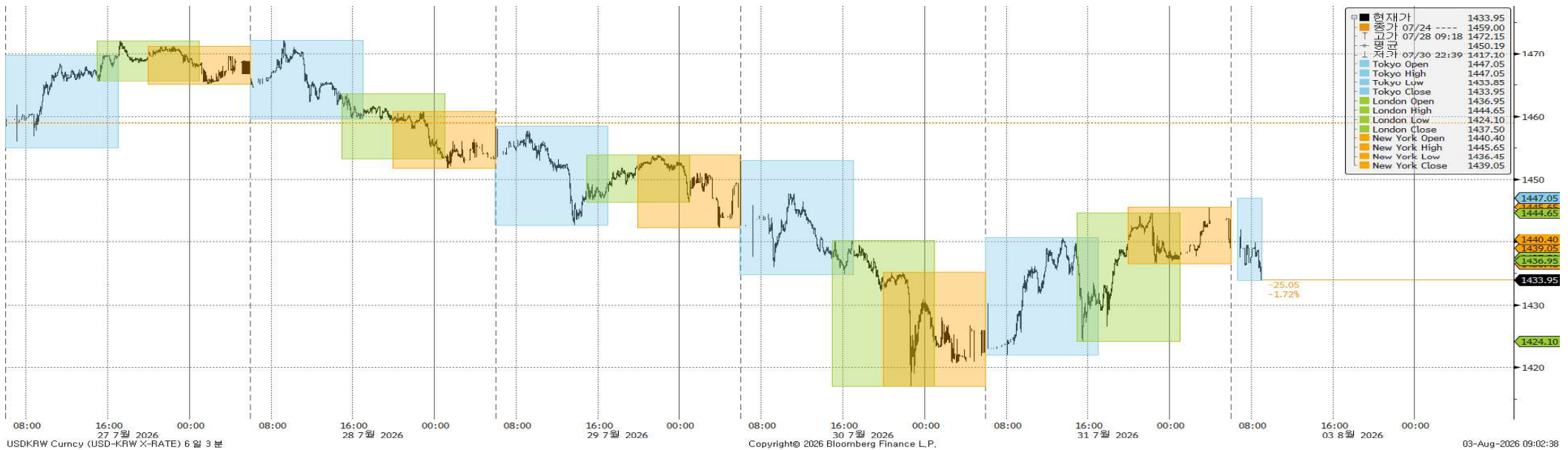


Hana FX Weekly Letters

2026. 8. 3

USD/KRW Weekly Market Trends (7/27~7/31)

종 목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원화환율	1,459.9원	1,472.4원	1,418.0원	1,435.5원	-24.4원
NDF(종합)	1,460.1원	1,472.2원	1,418.7원	1,443.0원	-17.1원



주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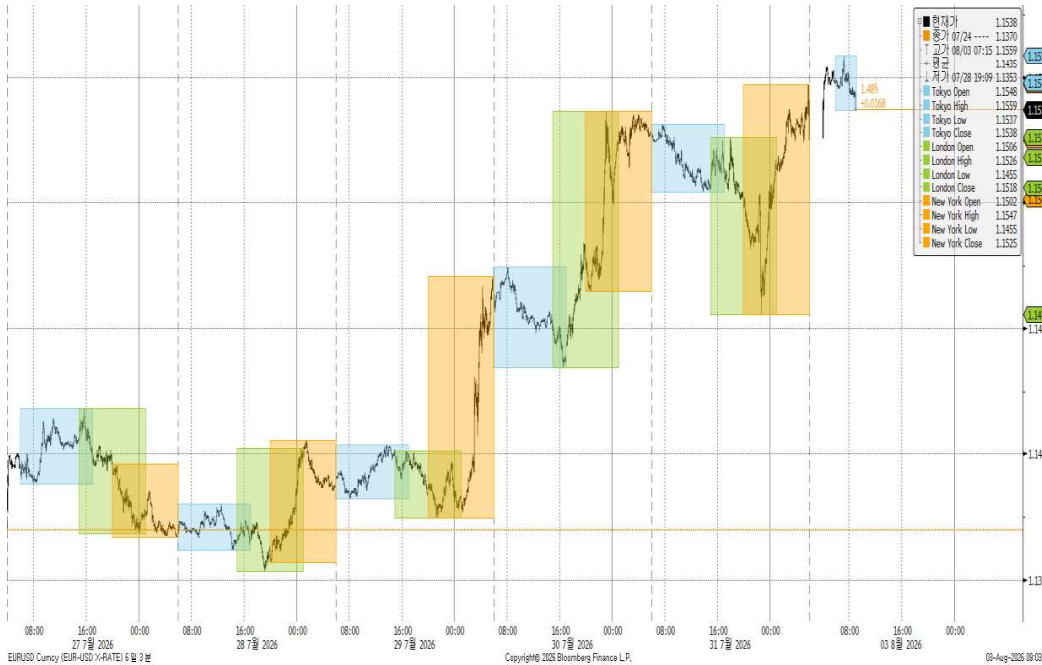
- 주초, 환율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국내 증시에서의 외인 자금 이탈 영향으로 1,460원 대로 상승 출발. 그러나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는 등 수급상 매도 우위가 형성되며 하락세로 전환
- 중반, 수출업체의 월말 네고물량이 지속 출회한 가운데, 7월 FOMC에서의 워시 의장 발언이 도비시하게 평가되며 글로벌 달러 약세와 연동해 추가 하락
- 후반, FOMC 여파로 인한 약달러 흐름과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 당국의 엔화 매수 개입에 따른 엔화 절상 및 달러 약세 영향까지 더해져 1,418원까지 급락. 다만, 이후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의 적극적인 유입과 미국의 이란 공습 예고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큰 폭으로 반등, 1,435.5원에 마감

주간 전망: 1,420원~1,450원

- 금주 달러/원 환율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와 엔화 강세에 따른 약달러 분위기를 반영하며 하방 압력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예상
- 주말을 앞두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으나, 다시 외교적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 이면서 국제유가가 하락. 이에 따라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된 점은 원화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 외환시장 개입 등 엔화 절상 의지가 부각되며 엔화 가치가 급등했고, 이는 상대적인 달러 약세를 자극하여 원화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환율 레벨이 낮아짐에 따라 대기 중이던 수입업체의 결제수요 등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어 환율 하단은 일정 수준 지지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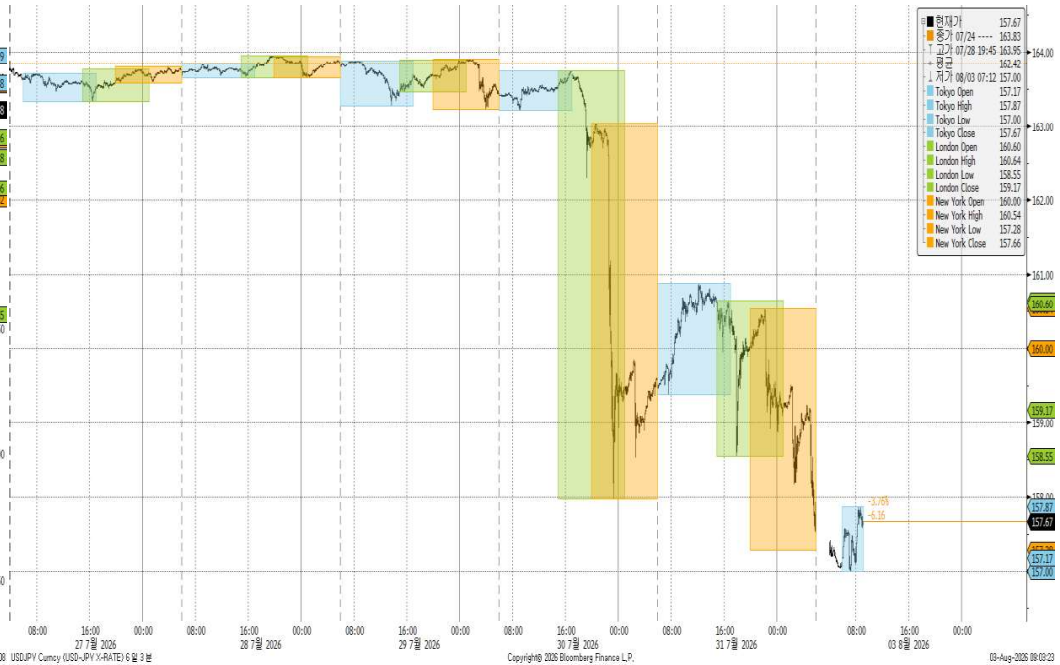
EUR/USD Weekly Market Trends (7/27~7/31)

종 목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유로/달러	1.1368	1.1547	1.1353	1.1529	+0.0161



USD/JPY Weekly Market Trends (7/27~7/31)

종 목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달러/엔	163.9	163.9	157.3	157.6	-6.3



유로화 동향

- 주초,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빅테크 규제에 반발하며 대규모 관세 부과를 경고한 여파로 약세 출발.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중재안 합의 기대감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자, 강세로 전환
- 중반, 연준 내부의 매파적 금리인상 주장에도 불구하고, 워시 의장의 완화적 발언에 힘입어 조기 긴축 경계감이 누그러졌고, 이에 따른 달러 약세를 반영하며 유로화는 1.14달러대로 상승
- 후반, 미-일 당국의 공동 엔화 매수 개입 가능성 등으로 엔화 가치가 급등, 이에 글로벌 약달러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유로화는 강세 흐름을 이어감. 이어 주 후반,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으나, 유로존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ECB의 긴축 경계감 역시 함께 강화되면서 유로화는 소폭 강세를 유지한 채 1.15달러대에서 마감

엔화 동향

- 주초,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일본 경제에 대한 안도감이 일부 유입되며 엔화는 소폭 강세를 보이며 출발. 그러나 FOMC를 앞두고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되면서 이내 약세로 돌아섬
- 중반,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워시 연준 의장의 정책금리 조정 신중론이 부각되어 글로벌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 이를 반영하며 엔화는 강세 흐름을 보임
- 후반, BOJ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일본 외환당국의 엔화 매수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유입되면서 160엔선을 하회하는 등 엔화 가치가 큰 폭 상승.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강경 대응 예고로 유가가 급등했으나, 엔저 방어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 대응 의지가 부각된 데 힘입어 엔화 강세 흐름이 어지며 157엔대로 하락 마감

KTB Weekly Market Movements (7/27~7/31)

종 목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국고채 금리 (3y)	3.865%	3.758%	3.758%	-0.20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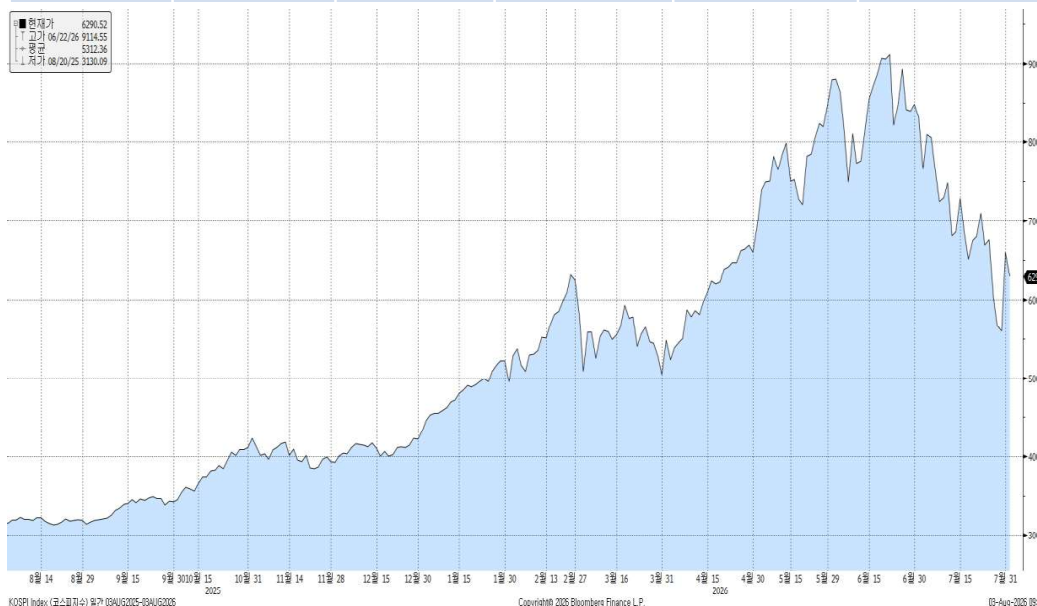
자료 : 블룸버그

주간 국고채 시장 동향

- 주초, 미국과 이란이 휴전 관련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는 급락 양상 출발. 이어 이들 연속 중동 교전 중단 국면에 따른 국제유가의 연속 급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속 유가증권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 전이 영향 등으로 하락 추세 지속
- 중반, 국제유가의 3거래일 연속 하락 추세 속에 금융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지속 반영되는 가운데 하락 추세가 이어졌으나, 한은 총재의 금리인상 기조 유지 속 근원물가 상승을 제어하는 방향성 제시 등이 국고채 금리 하단 제한
- 후반 들어, FOMC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워시 의장의 도비시 스탠스 속에서도 3인의 금리 인상 주장 결과 등에 따른 매파적 시장 인식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한 양상. 이어 주 후반, WGBI자금 유입 영향 및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등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 급락 마감

KOSPI Weekly Market Movements (7/27~7/31)

종 목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KOSPI	6,806.2pt	6,806.2pt	5,542.4pt	6,595.4pt	-95.17pt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전주 후반 미 증시의 반도체 업종 하락 양상에도 주말 사이 국내 반도체 업체의 대규모 계약 성사 소식과 미-이란 군사적 충돌 제한 속 투자심리에 대한 호악재 존재 되었지만 소폭 강보합 출발. 이어 중국 반도체 관련 소식 등에 따른 국내 관련 산업에의 부정적 영향 확대 등으로 반도체 부문 중심의 투자심리가 크게 훼손되며 큰 폭 하락
- 중반, 반도체 기업 하이닉스의 실적 실망감과 개인 투매가 겹치는 장세가 연출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들 연속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상황 등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속 전일에 이어 크게 하락하는 모습 시현
- 후반 들어, 연이틀 폭락 장세를 이어간 코스피는 6천선 회복 시도에 나섰지만, 반도체 고점 우려에 고금리, 고유가 우려까지 더해지며 1% 넘게 하락한 양상. 이어 주 후반, 간밤 반도체 투자심리가 되살아나며 코스피는 1천 포인트 넘는 사상 최대 상승 폭을 경신하는 가운데 코스피 6,600선에 가까워지며 마감

주간 주요 경제지표 일정

[illegible]